

## 2018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논술 모의평가 문제지 (인문계열)

※ 본 논술문제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광운대학교에 있으며,  
시험 종료 후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계열			
수험번호		성 명	

###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시험시간은 2시간(120분)입니다.
- 답안 작성란은 "검정색볼펜" 또는 "검정색 연필(샤프)"로 작성하십시오.
  - ※ 검정색 이외(빨간색, 파란색 등) 사용 금지
  - ※ 지우개,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 답안지에는 제목을 쓰지 마십시오.
- 답안과 관련 없는 표현이나 표시를 하지 마십시오.
- 답안지 1장 이내에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문제 1] 제시문 (가)의 지섭이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은 어떤 사회적 문제 때문인지를 밝히고 이 문제의 발생 원인을 제시문 (나)의 두 입장에서 각각 찾아 설명한 후, 제시문 (나)를 활용하여 제시문 (다)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두 입장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각각 제시하시오. (50점, 750±50자)

(가)

다음은 조세희의 소설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1978) 의 일부를 각색한 내용이다.

지섭은 밝고 깨끗한 주택가 삼층집에서 살았다. 지섭은 그 집 가정 교사였다. 아버지와 그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다. 지섭이 하는 말을 나는 들었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다니? 일을 했지. 열심히 했어. 우리 식구 모두가 열심히 일했네.”

“그럼 무슨 나쁜 짓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법을 어긴 적 없으세요?”

“없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올렸지.”

“그런데 이게 뭐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세상이 불평등한 것 아닌가요?”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달나라로!”

“애들아!”

(나)

사회는 다양한 유형의 서열화 된 지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은 그 중 특정한 위치를 차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전근대 사회에서는 출생 신분이라는 선천적인 조건이 개인의 위치를 구분 지었다. 이후 근대화를 거치면서 후천적 성취가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사회적 위치가 서열화 되는 이유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비해,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한정된 자원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 그 결과 개인이나 집단 간에 재산, 권력, 위신 등 사회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됨으로써 개인과 집단이 서열화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사회 불평등이라고 한다.

사회 불평등 현상은 사회 기능론과 사회 갈등론의 관점에서 설명 할 수 있다. 우선, 사회 기능론에서는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 즉 기능적 중요도에 따라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고 각 지위에 따른 역할 수행 능력에 따라 자원이 차별적으로 분배된다고 파악한다. 이처럼 기능론에서는 능력과 노력의 정도에 따른 차별적 보상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 불평등 현상은 필요하고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사회 갈등론에서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모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수나 대우를 차등 분배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높은 지위와 많은 보수가 주어지는 직업을 갖기 위한 기회도 개인의 자질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소득이나 학력 등 가정 배경에 따라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희소 자원의 분배 기준도 지배 집단의 권력과 강제에 의해 불공정한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본다.

(다)

정보 사회 초기에는 정보를 얻고 활용할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정보 접근권'이 도덕적 문제로 떠올랐다. 평등을 지향하였던 접근권 요구는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논쟁을 거쳐서 민주적인 정보 유통에 대한 요구로 논의 방향이 변화되었다. 확산을 지향하는 정보 자체의 속성에 맞는 자유로운 정보 유통은 선한 것이고, 소수에게만 독점되는 정보나 비공개적인 정보 유통은 비윤리적인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정보 유통이 양적으로 팽창되면서 정보가 지닌 재산적 가치가 윤리 문제가 되면서,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문제가 많이 생겨났다.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여 정보의 가치를 증대하자는 것이 \*카피레프트(copyleft)의 주장이고, 정보 생산에 들어간 노력의 대가를 충분히 지급해서 정보 자체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창작 동기를 자극하자는 것이 \*카피라이트(copyright)의 주장이다.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더 많은 양질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근본 취지에서는 양쪽 진영이 다르지 않다.

\*카피레프트(copyleft):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지므로 창작자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모든 정보는 무료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영의 논리다. 독점적인 판권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카피레프트(copyleft)라고 칭하며, '정보 공유론'이라고도 한다.

\*카피라이트(copyright): 정보 상품에 대한 판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영의 논리다. 판권(copyright)을 강조하여 '정보 사유론'이라고도 부른다.

[문제 2] 제시문 (가)의 ㉠실용의 관점을 제시문 (나)의 내용을 활용하여 비판하고 제시문 (나)의 ㉡도구적 자연관의 문제점을 제시문 (다)의 내용을 활용하여 설명한 다음, 제시문 (가)의 ㉢뽀내는 마음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문 (라)의 내용을 활용하여 논술하시오.

(50점, 750±50자)

(가)

허자가 말했다. "천지의 생물중에 오직 인간만이 귀합니다. 금수한테는 지혜가 없고 초목한테는 감각이 없으니까요. 또한 이들에게는 예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금수보다 귀한 존재이고, 초목은 금수보다 천한 존재이지요."

㉠**실용**은 고개를 들어 곁곁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 "너는 정말 인간이로구나. 오륜(五倫)이 인간의 예의라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함께 먹이를 먹는 것은 금수의 예의이고 군락을 지어 가지를 뽀는 건 초목의 예의이다. 인간의 입장에서 물(物)을 보면 인간이 귀하고 물이 천하지만 물의 입장에서 인간을 보면 물이 귀하고 인간이 천하다. 그러나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과 물은 균등하다. 무릇 대도(大道)를 해치는 것으로는 ㉢**뽀내는 마음**보다 더 심한 게 없다. 인간이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물을 천하게 여김은 뽀내는 마음의 근본이다. 너는 왜 하늘의 입장에서 물을 보지 않고 인간의 입장에서 물을 보느냐?"

(나)

인간중심주의 윤리는 인간 존재만을 가치있게 여기고 인간 이외의 다른 모든 존재는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이성과 자율성을 지닌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며, 인간이 아닌 존재는 직접적인 고려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인간의 이익이나 행복을 우선 고려해야 하고 동식물과 같은 존재는 인간과 관련되는 경우에만 간접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인간중심주의 윤리는 우선 이분법적인 세계관에서 출발한다. 이분법적인 세계관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본다. 이러한 세계관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간과하고 인간을 자연에 비해 우월한 존재로 인식한다. 또한 인간중심주의 윤리는 ㉡**도구적 자연관**을 가지고 있다. 도구적 자연관에 따르면, 자연은 그 자체로 가치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복지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이 입장은 자연을 유용성의 관점에서 평가하면서 자연을 인간 생활에 이롭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본다.

(다)

나는 간혹 남의 말을 빌려 타곤 한다. 말굽이 높고 귀가 쫄긋하며 잘 달리는 준마를 얻었을 경우 의기양양하여 방자하게 채찍을 갈기기도 하고 고삐를 놓기도 하면서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로 간주한 채 매우 유쾌하게 질주하곤 한다. 그러나 간혹 위험하게 말을 몰아 말에게 부상을 입히는 환란을 면하지 못한다.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요,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은 어버이에게서, 지어미는 지아비에게서, 종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대부분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함부로 사용하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면 임금도 국민에게 외면당하는 군주가 되고, 대부(大夫)도 신임을 못받는 신하가 되는 법인데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라)

도가에서는 인간의 의지나 욕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자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강조한다. 장자에 따르면, 만물은 제각기 서로 다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타고난 본성을 충분히 자유롭게 발휘했을 때 행복할 수 있다. 구만리 창공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큰 새와 나무 사이를 겨우 날아다니는 매미는 타고난 본성은 서로 다르지만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에 자유롭게 행복하다. 장자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가치의 측면에서 모두 똑같이 평등하고 소중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는 인간의 욕망이 무리하게 개입해 자연을 통제하거나 조작하면 안 된다고 보았다. 오리 다리가 짧다고 인위적으로 늘려주거나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잘라내는 행위가 불행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만물의 스스로 그러함이라는 자연적 본성을 인간의 의도적인 행위로 파괴하는 것이다. 이같이 도가는 무위의 자연스러움 속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였으며, 인간이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한편, 불교에서는 만물이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상호 의존한다고 본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며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인간도 자연과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더불어 존재한다.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면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인간이 다시 돌려받게 된다. 불교는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자각하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 것을 강조한다.